시연施連의 현조실록탐험 顯祖實錄探險

장원급제壯元及第를 한 시간공司諫公, 올곧은 성품으로 인해 대사간大司諫에 오르지 못했다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윤공파회장

조선 18대 임금 현종(顯宗, 재위기간 1659~1674) 4년(계유癸酉 1663) 식년시(式年試)에서 장원급제(壯元及第)를 하신 사간공(司諫公, 휘諱 진한震翰)은 광해군(光海君) 7년(1615년 을묘乙卯) 선산군(善山郡, 지급의 구미시) 초곡에서 태어나 서책을 끼고 살았다고 전해진다. 49살 늦은 나이에 장원급제〈조선왕조실록 현종편顯宗編 8권〉이후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30번을 넘게 이름이 기록될 만큼 역사의 풍운아가 됐다.

字는 구만(九萬), 호는 낙빈공(洛濱公) 또는 낙빈거사(洛濱居士)다.

좌윤공파(佐尹公派)의 문호를 크게 열어 주신 문정공(文靖公, 휘諱 희정希正/ 고려감찰어사高麗 監察御史/ 조선 좌의정左議政)의 맏아들 판도공(版圖公, 휘諱 곡轂)의 증손(曾孫)이자 대과급제(大科及第)를 하신 현감공(縣監公, 휘諱 한생漢生)의 셋째 동생 부장공(部將公) 휘(諱) 한(漢)의 현손이 되며 부장공(部將公)의 아들 휘(諱) 국평공(國平公)의 증손, 장사랑(將仕郎) 영준(英陵) 참봉(參奉) 휘(諱) 치의 손자가 된다.

부친의 자는 성우(聖遇), 호는 일제(逸齊), 휘는 운서(雲瑞)다. 선조 14년(1481) 예천(醴泉)에서 태어나 장사랑에 올랐으며 예천 용궁에서 선산(善山, 지금의 구미시) 초곡으로 살림을 나 선산 입향조가 됐다.

낙빈공(洛濱公)은 청년 시절에도 대쪽 같은 성격을 지녔다. 선산(善山) 초곡에서 생원시(生員試)에 입격(入格), 대과(大科) 준비를 하던 시기 영남지역 유림들이 선유(先儒)의 문묘(文廟) 배향(背向)을 청원(請願)하는 통문(通文)을 보고 "세상에 어찌 사소(邪疏)에 동참하는 권진한(權震翰)이 되겠는가"하고 수결을 거부했다.

생원(生員) 낙빈공(洛濱公)은 이 일로 인해 좌폐(坐廢) 즉 과거(科擧) 길이 막혔다. 학문은 높았지만 20여 년을 포의(布衣, 벼슬이 없는 선비)로 지내다 현종(顯宗) 4년 식년시(式年試)에서 49살 늦은 나이에 장원급제(壯元及第) 벼슬길이 처음 열렸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첫 기록은 어전(御前)에서 현종(顯宗) 임금이 직접 내린 어사화(御賜花, 임금이 대과급제자에게 내린 두 줄 종이꽃)를 쓰고 현종(顯宗)이 묻는 문장론을 두고 한 시진(지금의 두 시간)을 넘게 삼정승(三政丞)과 판서 등 당상관들이 지켜보는 자리에서 담론(談論)을 나누었다고 기록됐다.

사간공(司諫公 또는 낙빈공洛濱公)의 학문과 문장력, 맑은 품성에 반한 현종(顯宗)은 급제자(及第者)에게 좀처럼 바로 내리지 않는 사헌부(司憲府) 감찰(監察)을 제수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 사간원의 종삼품 간관)으로 자리를 옮겨 직언(直言)을 일삼는 간관(諫官, 언관言官) 교지를 내렸다.

홍주(洪州) 목사(牧使, 正三品)로 잠시 외직(外職)으로 나갔으나 숙종(肅宗) 1년(1675)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이 됐다. 6개월 후엔 결성현감(結城縣監)으로 외직에 나갔다가 다시 홍주목사(洪州牧使, 목백牧伯 정삼품正三品)로 부임하는 등 임지가 수시로 바뀐 것은 직소가 원인이 됐다. 숙종(肅宗) 2년(1675)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으로 내직으로 들었다.

숙종(肅宗) 3년 4월 13일 어전(御前) 회의에서 우의정(右議政) 허목(許穆)이 권진한(權震翰) 정언(正言)을 두고 올곧은 사대부(士大夫)라고 거들었을 만큼 대쪽 같은 성품을 지녔다.〈숙종실록肅宗實錄 6권〉

그 이듬해 정사년(丁巳年)엔 병조정랑(兵曹正郎)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처럼 승진과 탄핵을 당하면서도 임금이 바른 정사를 펼칠 수 있도록 거침없이 조언했다. 그러다 보니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에 공(公)의 휘(諱)가 30번 넘게 등장했다.

현종(顯宗) 4년(1663) 왕조실록(王朝實錄) 기록엔 성균관전적(成均館典籍, 급제 후 처음 받은 직책) 때 대헌(大憲)의 탄핵(彈劾)을 받고 파직(罷職)됨으로써 사판(仕版, 벼슬인의 명부)에서 삭제됐다.

그해 8월 11일 자 실록(實錄)엔 "사헌부(司憲府)의 추고(推考, 벼슬아치의 험담을 묻는 일)에 3차례나 함답(緘答)을 거부, 올바른 길로 형추(刑推) 할 것을 청하니 임금이 "추함(推緘)을 거부했다고 해서 조관(朝官, 아침마다 보는 관원)을 외방(外方, 한양이 아닌 지역)에 형추(刑推, 형벌)한 예가 있느냐"고 봉입승지(捧入承旨, 왕 옆에 배석한 승지)를 꾸짖는 기록이 실렸다.

현종 4년(1663) 8월 13일 임금의 질책에도 대각(臺閣, 사헌부 사간원을 일컫는 말)에서 받는 추고에서도 세 차례나 경상감영(慶尙監營)에서 형추(刑推)하는 문제엔 대사헌(大司憲) 김수항(金壽恒)과 영의정(領議政) 정태화(鄭太和)가 찬성, 조언하는 기사도 같이 실렸다. 9월 5일 자엔 파직된 내용이 또 기록됐다.

숙종(肅宗) 1년(1675) 5월 7일 자에는 좌랑(佐郎, 육조六曹의 정6품正六品)일 때 나적(羅積)이 정개청(鄭介淸)의 훼철된 서원 복원 상소(上疏)에 서명 거부로 태거(汰去, 벼슬아치를 내쫓는 행위) 되었으나 숙종(肅宗)의 명으로 취소된 기록도 실렸다.

숙종(肅宗) 2년(1676) 7월 18일 정언(正言)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해 8월 28일과 9월 2일, 10일에도 종묘(宗廟) 배식 문제로 잠시 물러났다가 11월 30일 복직됐다.

숙종 3년(1677) 1월 23일 정언으로서 육조(六曹) 판서(判書)와 비변사제신(備邊司諸臣, 군국軍國을 보는 기관)을 친견하는 자리에서 상언(上言, 백성이 임금에게 글을 올리는 일)을 맡기도 했다. 이 자리 역시 탄핵이 수시로 닥치는 위험한 자리였다.

이처럼 사간공(司諫公 또는 낙빈공洛濱公)은 장원급제(壯元及第) 이후 제수받은 청요직마다 탄핵을 받았으며 탄핵의 주요 원인 즉 상소 내용이 대부분 삭제되어서 평가가 어렵지만 어전(御前) 회의에 참석했던 당상관(堂上官)들마다 "권진한 같은 선비야말로 굳세고 씩씩하도다. 강제교(强哉矯)하고 칭찬할 인물이다"고 칭송했다고 기록됐지만 대쪽 같은 성품으로 인해 대사간(大司諫, 시간원司諫院의 으뜸 벼슬 정3품正三品)에 오르지 못했다.

대과급제자(大科及第者)가 나오면 그 집안은 물론 급제자를 배출시킨 지역과 사문(師門)도 큰 영화를 누렸다. 장원급제(壯元及第) 집안은 향반(鄕班)에서 국반(國班)의 위치에 들어가 위상이 달라지고 사후(死後)에도 임금이 부조지전(不祧之典, 신주를 사당에 모시고 제사를 세세생생 받들도록 함)을 내리고 서원(書院)에 배향되는 혈식군자(血食君子)로 추앙받는다.

사간공(司諫公/ 낙빈공洛濱公)은 장원급제(壯元及第) 이전부터 당대의 문장가(文章家)로 이름을 얻어 공(公)의 글을 구하러 온 선비들로 부친(父親) 장사랑공(將仕郎公, 휘諱 운서雲瑞)의 선산(善山) 사랑채가 늘 붐볐다고 전해진다. 두 대에 걸쳐 문장가(文章家)로 이름을 얻었다.

1677년 3월 22일 성균관(成均館) 근처 집에서 생의 끈을 놓으시니 세수 63살이었다. 부음(訃音)을 받은 숙종(肅宗) 임금은 "좌우에서 돕는 손을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씀하시고 자헌대부(資憲大夫) 병조참판(兵曹參判)에, 순조(純祖, 1800~1834) 임금 들어 숭정대부의정부좌참찬(崇政大夫議政府左參贊)으로 가증(加增)됐다.

낙빈공(洛濱公)은 초곡 낙동강 샛강에 신풍정(新楓亭)을 짓고 고궁락도固窮樂道(곤궁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즐기는 생활) 소요자적(逍遙自適)에 묻혀 생을 즐겼던 포의(布衣) 시절이 가장 행복했었다고 유집(遺集)에 남겼다. 사간공(司諫公)의 행장은 당대의 문인 송준필(宋浚弼, 1869~1943, 조선 말 상주출신 도학자)이 지었으며 유집(遺集)이 남아 있다.

사간공(司諫公)은 숙부인(淑夫人)이신 충주최씨(忠州崔氏, 부父 휘諱 엽燁) 사이에서 두 아들과 두 딸을 뒀다. 충주최씨(忠州崔氏)는 광해군(光海君) 10년(1618)에 나서 숙종 7년(1681) 64살 때 돌아가셨다. 낙빈공(洛濱公) 묘소는 구미시 선산읍 낭산(朗山) 하둔동(下屯洞) 산록 갑좌(甲坐)에, 숙부인(淑夫人)은 묘좌(卯坐)에 써졌다.

자녀는 통덕랑(通德郎), 통사랑(通仕郎)을 지내신 태윤(泰胤)과 형윤(亨胤)이 있고 두 따님은 문신(文臣)이었던 이표(李杓), 전두형(田斗亨)에게 출가했다.

〈자료출처: 조선왕조실록, 좌윤공파판도공 세보佐尹公派判圖公 世譜, 안동권씨대종세보安東權氏大同世譜, 선산군사善山郡史, 유고문집遺稿文集〉

건강 칼럼 | 권영훈 한의원 원장

건강 칼럼, 동트는 새벽 力, 20대 건강 80대까지

7이라는 숫자, 한의학(韓醫學)에서 많이 쓰인다.

흔히 '럭키세븐'이라고 하던가. 그러나 인간에게 '7'은 복과 요행을 상형(象形)하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특히 한방 내지 동양의학에선 인간의 건강 사이클과 인생의 육체적·정신적 변화를 구획짓는 범상찮은 뜻을 부여하고 있다.

신생아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7이란 숫자는 의미 있는 역할을 한다. 예컨대 표준 체중이라고 할 3~3.5kg 범위의 무게로 태어난 아기는 일주일, 그러니까 7일이 지나면 눈에 띄는 변화를 보인다. 토실토실하게 살이 붙으며, 하루하루가 다르게 커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물론 표준 체중을 넘는 아이들은 좀 다르다. 4~4.5kg의 크기로 출생한 아이들은 신체 수분이 일정 부분 증발하면서, 7일 또는 열흘이 지나도 그다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표준'의 몸무게나 외모에 근접하려는 자연의 섭리라고 할까. 다소 비약하자면 '7'은 그런 '섭리'와도 무관치 않은 숫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산모가 몸조리할 때도 역시 '7'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 많다. 중국 서남 지방이나 티베트 산악 지역의 산모들은 3주일(3×7=21)간은 불을 밝히지 않고 어두컴컴한 방에서 종일 신생아와 함께 지낸다. 이는 세상에 갓 나온 신생아의 시력을 보호하기 위한 배려이기도 하다.

이런 보살핌을 받고 자란 아이는 그야말로 망원 렌즈급 시력을 지니게 된다. 실제로 이 지역 사람들 중엔 시력 5.0 에 가까운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처럼 숫자 '7'은 한 인간의 생로병사(生老病死)와 사슬처럼 엮어져 있다. 생후 7개월이 되면 이가 나고, 7살이 되면 영구치가 나기 시작한다. 뿐만 아니라 여자아이가 14살(2×7=14)이 되면 생리 현상이 시작되고, 이성을 알게 된다. 이때 남자 아이는 한방에서 일컫는 천정수(精)가 전립선에서 분비되고, 여자 아이는 이른바 천계수(癸水)라고 하는 생리가 시작된다.

그 후 나이가 들어 여성이 49살(7×7=49)이 되면 폐경이 되며, 이즈음 퇴행성 신체 변화가 비롯된다. 다만 남자의 경우 체질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며, 매우 건강한 사람은 심지어 80살이 넘어도 성생활을 유지하기도 한다.

이처럼 '7'이라는 숫자는 마치 숙명과도 같이 인간과 함께 하며, 성장 단계나 변화된 모습을 규정하고 있다. 한방에서 7'이란 숫자는 그래서 단순한 숫자나 기호 이상의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울산종친회 제37차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 개최

지난 1월 31일 오후 6시 울산 시티컨벤션에서 각 친목회원 및 울산 종친 약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권씨 울산종친회 창립 49주년 제37차 정기총회 및 신년하례회"를 개최하였다. 권혁환 종친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식순에 의거 진행되었으며 회기 입장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시조 태사공에 대한 망배, 연혁 보고, 권응목 총무부장의 결산보고, 권오달 감사 대행의 감사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울산종친회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에게 공로상을 수여하였다. 수상자는 함월친목회 권영희 외 10명에게 공로장과 시상금을 전달하였다.

다음은 권의호 종친회장의 신년사가 있었는데, 권의호 회장은 신년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종친회에 보내주신 성원과 협조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올 한해에도 변함없는 성원으로 울산종친의 친목도모와 화합을 강조하였으며 무엇보다도 건강하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권현기 청장년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으며 권현기 청장년 회장은 축사에서 지금까지 단합된 울산종친의 모습이 앞으로도 지속되기를 바라며 올해 영주에서 개최하는 전국청장년 체육대회에 울산종친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하였다.

계속해서 종친회장, 청장년 회장 및 각 친목회장을 모신 가운데 케이크 절단과 건배 제의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식사 후 제2부 장기자랑 및 화합의 시간을 가졌으며 행운상품 추첨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울산종친회 총무부장 권응목

부산등산회 제18차 정기총회

부산종친회 산하 등산회(회장 權寧寅)는 지난 1월 31일(토) 정기총회를 겸한 산행에 나섰다.

이른 아침부터 지하철 1호선 남산역에는 서암(영인) 회장, 운산(중원) 명예회장을 비롯해 회원 20여 명이 모여들었다. 이날 산행 코스는 남산역에서 윤산을 끼고 도는 산책로를 따라가다가 회동호 둘레길로 이어진다. 여기서 호반을 따라 걷다 보면 나타나는 상현마을이 오늘의 목적지이다.

윤산은 부산 금정구 부곡동 동쪽에 자리 잡은 고도가 317m로 비교적 야트막한 산이며, 금사동·서동·오륜동과 경계를 이룬다. 조선시대 동래부의 진산으로 지리지와 고지도에 빠짐없이 등장하며, 산 이름에 바퀴 '륜(輪)' 자가 붙은 것은 산 아래쪽에서 바라보는 산세가 수레바퀴처럼 둥글어서라 한다. 오전 10시에 맞춰 출발한 일행은 꼬부랑길을 굽이굽이 돌고 돌았건만 12시도 채 못 되어 어느새 상현 마을이 눈앞이다. 오는 길에 쉬면서 각기 싸온 음식과 성용 고문 팔순 케이크로 주전부리를 한 덕에 식당 예약을 1시간 늦추고 다시 호반가로 나선다. 날씨가 풀려 흡사 봄날 같고, 철마 쪽에서 흘러드는 시냇가 풍경도 멋들어져 이곳은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30분쯤 걷다 보니 다리 하나가 놓여 있다. 회동호를 가로질러 건너편 아홉산과 연결되는 보행전용인데 누리교란 이름표를 달고 있다. 다리 위에서 바라본 호수는 한 폭의 그림이다. 양편 산등성이와 어우러진 풍경이 그야말로 진경(珍景)이다. 여기저기서 셔터 터지는 소리가 들린다.

여기서 회원 일부는 다리 건너 시냇가를 따라가고, 남은 이들은 끼니때가 지나 허기가 돈다는 말에 모두 발길을 돌려 식당으로 향했다. 식당에는 걷기에 불참한 몇몇이 먹을 채비를 하고 있다. 막 들어온 일행도 자리를 잡고 앉는다. 곧바로 나온 백숙이 때가 늦어선지 유난히 맛나다. 때맞춰 멀리 간 일행도 도착해 음식을 받아든다. 모두가 어울리니 건배와 주고받는 얘기로 소란스러운 가운데도 다들 음식은 잘도 먹어댄다.

식사 후 회순에 따라 정기총회를 가진 다음, '올해는 더 많은 족친이 등산에 참여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회의 후 바쁜 이들은 먼저 떠나고, 나머지 절반은 영락 공원을 거쳐 금정도서관 쪽으로 빠져 나왔다. 범어사역 근처에서 간단한 요리로 하산주를 나누며, 즐겁고 화기애애한 가운데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 사무국장 권채영

2026 병오년 제13회 부호장공파 파조 정알례 봉행

부호장공파(副戶長公派: 회장 권헌종)가 주최하는 "2026 병오년 제13회 부호장공파 파조 정알례"가 2월 21일(음력 정월 초 5일 定日) 오전 11시 안동시 어가골길(태화동) 일원정(一源亭)에서 봉행(奉行)하였다.

이날 낮 기온은 영상 15도로 봄 날씨를 방불케 하여 정알례를 봉행하는 데는 별 지장이 없었다.

올 들어 13회 째 맞이하는 파조(派祖) 정알례(正謁禮)는 권영건 도유사(都有司)를 비롯하여 권헌종 파종회장, 권병균, 권주연 고문 2명, 권중대, 권오엽 부회장 2명, 권대수 위원, 권정탁, 권순태 제례위원 2명, 권태욱 사무국장 등 모두10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도유사를 맡은 권영건은 검은 제복(祭服)에 갓을, 나머지 고문과 임원 등 9명은 평상복(平常服)에 유건(儒巾)을 각각 쓴 채 일원정에 모셔놓은 파조 위패(位牌)를 향하였다. 이들은 권태욱 사무국장이 사전 준비하여 차려놓은 주과포(酒果脯)와 파조 위패를 향하여 엄숙하게 재배(再拜)하였다.

정알례를 마친 고문과 임원들은 일원정 마루 위에서 상읍례를 한 후 음복례를 하였다. 이 자리에서 권영건 도유사는 인사말에서 "올해로 파조 정알례를 열 세 번 째 모시는 자리에서 바쁜 가운데 고문과 임원들이 정알례에 참석하여 주어서 대단히 고맙다"고 말했다. 음복례가 끝나자 고문과 임원들은 일원정 앞 잔디밭에서 단체로 기념 촬영을 하였다. 기념 촬영을 마친 임원들은 안동시 옥동2길(옥동)에 위치하고 있는 '안동칼국수식당'으로 이동,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칼국수로 점심을 먹은 후 헤어졌다.

권영건 보도부장

추밀공파대종회 이사회 및 합동 세배식 개최

추밀공파 이사회가 2월 24일 11시 고양시 원당 소재 정간공 회의실에서 권오돈 회장,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 권용주 매헌공 종중 고문, 권기준 문경공 종손, 권병돈 정간공 종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사회에 앞서 도배례(都拜禮)가 진행됐다.

말하자면 '합동 세배식"이다. 권정택 행주서원 원장의 집례로 85세가 넘으신 추밀공파 대종회 이사님들께 간단한 다과를 차려놓고 세배를 드렸다.

권정택 원장은 기로소에 최초로 입소한 것이 안동권씨였으며, 원로에 대한 예우의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권순만 추밀공파 매헌공종회 사무국장